

“꿀벌군단 한국 방문 추진할게요”

(도르트문트)

“이영표·박주호 등 한국선수 활약 좋은 재능 가진 선수들 영입 희망 한국시장 역시 꽤 플랫폼 가능성”

지난 4일, 독일문화축제 ‘저먼 페스트 옛 롯데월드타워(GERMAN FEST at LOTTE WORLDTOWER)’가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렸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구단인 도르트문트도 축제를 함께했다. 덕분에 이날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사람들은 독일의 축구 문화도 즐길 수 있었다.

행사 첫날이었던 이날은 도르트문트의 아시아 매니징 디렉터 수레시레치마난도 참석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팬들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한국 시장에 대한 소망을 드러냈다.

- 아시아 매니징 디렉터의 주된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아시아 매니징 디렉터 수레시레치마난입니다. 도르트문트를 아시아에 알리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도르트문트의 아시아 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도르트문트의 위상을 높여준 것은 단연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된 아름다운 유니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도 상징적인 유니폼이죠.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아시아 선수들도 힘이 됐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아시아 선수들에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함께한 이영표와 더불어 박주호, 일본의 카가와 신



도르트문트 아시아 매니징 디렉터 수레시레치마난이 한국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춘스포츠

지 등 훌륭한 아시아 선수들이 활약했죠.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사실 우리 도르트문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2만5000명의 노란 장벽(도르트문트 서포터석)입니다. 도르트문트는 항상 팬들과 소통합니다. 이는 도르트문트의 가장 좋은 원동력입니다.”

- 도르트문트는 한국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기대하시나요.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통해 한국에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한국의 새로운 뛰어난 선수를 데려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도르트문트에게 매우 흥미로운 시장입니다. 한국에서의 행사는 도르트문트가 한국에 자리잡는데 있어 좋은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진행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요.

“한국에서의 행사는 미디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르트문트 구단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있어 좋은 발판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도르트문트 선수들과 한국에서 경기를 갖고 싶습니다.”

심경서 명예기자(중앙대 경제학 전공)

gahyun0226@naver.com

인종차별에 강력 대응 세리에A ‘변화의 바람’

10년 전만 해도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 세리에A는 당당하게 유럽 최정상급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승부조작과 세대교체 실패 등으로 잉글랜드와 스페인에 유럽최강의 지위를 넘겨줬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인종차별 등 폭력에 대해 타 리그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해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밀라노의 주간지 ‘파밀리아 크리스티나’의 편집자 줄리아 체르케티는 “타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당국가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다수인 집단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유독 이런 문제에 대해 세리에A와 이탈리아가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세리에A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9월 27일 AS로마는 주앙헤수스의 SNS계정으로 인종차별적 메시지를 보낸 이를 경찰과 협력하여 추적했고 당사자를 로마 경기에 영구 출장금지시켰다. 전·현직 이탈리아 총리들도 해당 조치를 치하했다. 이는 이탈리아인들도 세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단편이라 볼 수 있다. 변화가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정훈 명예기자(한국외대 아랍어학 전공)

vientof14@gmail.com

마르코 로이스와 재회 꿈꾸는 김동준 대표

(도르트문트 선수)

독일 ‘숏포르브첼린지’ 행사 추억 “진짜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 느껴”

“다시 보고 싶은 선수는 역시 마르코 로이스죠.” ‘숏포르브’ 김동준 대표는 마르코 로이스와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었다.

김동준 대표는 4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저먼 페스트 옛 롯데월드타워’ 행사에 숏포르브 촬영을 위해 방문했다. “예전에는 독일에 가서 비공식 루트를 통해 주차장에서 촬영을 했죠. 그랬던 제가

도르트문트 구단과 분데스리가가 같이 진행하는 자리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아 감회가 새롭습니다”라며 행사에 초대된 소의를 밝혔다.

그는 도르트문트에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숏포르브첼린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도르트문트의 감독이었던 위르겐클롭을 비롯해 마츠홈펠스, 마르코 로이스와 만났다. 클롭과 홈펠스는 캠페인에 참여했지만 로이스는 아쉽게 참가하지 못했다.

김동준 대표가 숏포르브첼린지에 참여



도르트문트 엠블럼 앞에서 포즈를 취한 ‘숏포르브’ 김동준 대표

했던 다른 이들보다 로이스를 더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로이스는 숏포르브와 만났을 당시 부상을 당해 공을 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자리를 뒀던 로이스는 마음이 쓰였는지 다시 김 대표에게 다가가 자신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건넸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곤 걸 느꼈습니다. 기증할 테니 좋은 목적으로 써 달라며 유니폼을 내주는 로이스의 모습을 김대표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불러만 주신다면 엄청 감사한 일이지. 언제든 환영입니다”라며 독일 재방문의지를 드러낸 김동준 대표. 그는 언젠가 로이스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서경석 명예기자(상명대 생명과학 전공)

tjalstjr791@naver.com



교육·퍼즐

에듀월

다양한 복지제도·서비스 확충 예정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임직원을 위한 ‘힐링큐브’...에듀월만의 복지서비스 눈길

직장을 구할 때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중요해지면서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복지에 이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월은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꿈의 직장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주 4일 근무제를 비롯해 에듀월만의 다양한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뜻한다.

에듀월은 ‘꿈의 직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본사 지하 1층에 임직원들을 위한 전문 안마시설인 ‘힐링큐브’를 마련하고 임직원들이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했다.

‘힐링큐브’는 에듀월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사내 복지시설로 국가공인자격 안마사 4인을 직접 채용해 운영하는 전문 안마시설이다. 힐링큐브는 하루 최대 32명씩 이용할 수 있으며, 에듀월 임직원들은 업무 시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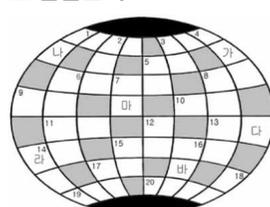


1회당 30분씩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힐링큐브에 직원 전용 수면실과 샤워실을 마련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여성 전용 휴게실인 ‘심’의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시간 관계상 힐링큐브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에듀월만의 복합 문화공간인 ‘에듀월역’에 마련된 39대의 안마의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듀월 관계자는 “에듀월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풀고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날말문제



■ 가로 열쇠 01. 거의 이루어질 듯한 희망. 03.마리 정하여 놓은 시각이 되면 저절로 소리가 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시계. 05.편안함과 편안하지 않은지에 대한 소식. 06.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섬. 08.무엇에 끼우기 위하여 쇠붙이로 만든 둥근 물건. 09.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됨. 10.폭력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11.웃감, 종이 따위를 자르는 기구. 13.기운이 영하일 때 유리나 벽 따위에 수증기가 허영게 얼어붙은 서릿발. 14.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15.서로 낮고 못함이 없음. 17.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앴. 19.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하는 풀. 20.손님을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겸하여 베푸는 연회. ■ 세로 열쇠 01.책상·문갑·장롱 따위에 빼었다 끼웠다 하게 만든 뚜껑이 없는 상자. 02.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 03.매느리. 04.무릎과 발목 사이의 뒤쪽 근육 부분. 05.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 마음을 놓음. 06.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07.긴 쇠붙이를 구부리고 양

끝을 맞붙여 둥글게 만든 물건. 08.발전의 속도나 규모 따위가 높은 정도로 빨리 이루어짐. 12.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 14.아닌 게 아니라 과연. 15.생명이나 신체, 재산 따위에 손해를 입음. 또는 그 손해. 16.상기 래나 춤, 경기 따위에서 둘이 짝이 되는 경우의 상대편. 17.꽃이 피는 풀과 나무. 또는 관상용의 모든 식물. 18.부유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

날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날말을 모두 풀 다음 가~바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가 이름이 됩니다.

